

## 전국 문화원장 연찬회 축하 메시지

전국의 문화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풍성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반만년을 이어온 전통문화 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때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지방의 역량 또한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문화는 지방화 시대의 핵심적인 발전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행정과 재정개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실행

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지금껏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방이 스스로의 성장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저는 지방문화원장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지역 문화의 저변 확대와 균형잡힌 국가발전을 위해서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찬회가 우리 지역문화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